



육상 첫 金… 제주선수단 ‘순항’

전국장애인체육대회 3일째
수영·육상·파크골프 金 획득

제3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중반을 넘어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선수단이 목표 메달을 향해 순항하고 있다.

제주도선수단은 전국장애인체전 3일째인 17일 수영과 육상, 파크골프에서 잇따라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수영에선 여자 자유형 100m에서 출전한 장희선이 금메달을 획득했으며 육상에서도 금빛 질주가 이어졌다. 이동규는 남자 100m T37에서 단독 독주를 보여주며 13.45초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제주선수단은 파크골프에서도 금메달을 추가했다. PGST2 개인전에서 고매자는 종합점수 168점으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PGW 개인전 성정자는 상대 선수와 188 동점타를 기록하는 접전 끝에 최종 승자를 가리는 ‘서든데스’까지 향하며 값진 금메달을 따냈다.

제주도선수단은 경기마다 기량을 뽐내며 메달 수확을 이어갔다. 이날



제39회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육상 남자 100m T37에서 금메달을 딴 이동규(오른쪽에서 두번째)가 시상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장애인체육회 제공

하루 금메달 4개를 추가한 데 이어 수영(은 2·동 4)과 육상(은 2·동 1), 역도(동 1), 테니스(동 1), 파크골프(동 1), 댄스스포츠(은 2)에서 추가 메달이 나왔다. 이로써 제주도선수단이 지금까지 획득한 메달은 총 51개(금 13·은 24·동 14)다.

제주도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현재까지 목표 메달을 향해 순항하고 있다”면서 “내일(18일) 펼쳐지는 축

구, 댄스스포츠, 배드민턴, 수영 등 종목에서도 많은 메달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올해로 39회째 열리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오는 19일까지 서울시에서 열린다. 제주에선 육상, 농구, 보치아, 론볼, 좌식배구 등 20개 종목의 선수 234명이 참가하고 있으며, 95개 이상 메달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산악인 ‘고상돈’ 기리며 한라산 걷는다

‘고상돈기념사업회’ 주최
내달 3일 고상돈로 걷기

우리나라 산악인으로는 처음으로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8848m)에 오른 제주 출신 산악인 고상돈(1948~1979)을 기리는 2019한라산 고상돈로 전국 걷기대회가 11월 3일 한라산 고상돈로에서 열린다.

(사)고상돈기념사업회(이사장 양봉훈)가 주최하는 이번 대회에서는 한라산 아승생수원지 서쪽 삼거리 출발, 고상돈이 잠들어있는 한라산 1100고지 고상돈공원까지 8848m 구간을 걷는다.

1977년 고상돈과 함께 에베레스트 원정 등반에 나섰던 김영도 대장(현 대한산악연맹 고문)을 비롯 77한국 에베레스트원정대원, 대한산악협회 회원, 고상돈 산악인의 부인 이희수 씨와 유가족 등이 참석한 고상돈의 에베레스트 등정 의미와 한국 산악계에 끼친 영향 등을 설명하는 시간도 갖는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북한 목함지뢰 피해자 하재현 장애인체전 조정 金메달 획득

2015년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수색 작전 중북한이 심어놓은 목함지뢰에 두 다리를 잃고 장애인조정 선수로 변신한 하재현(25·SH공사) 예비역 중사가 제3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하재현은 17일 경기도 하남시 미사리 조정경기장에서 열린 장애인조정 남자 싱글스컬 PR1에서 5분20초 12의 기록으로 이종경(강원·6분8초 44)을 큰 차이로 누르고 우승했다.

아울러 지난해 기록(5분58초64)을 30초 이상 당겨 2020년 도쿄패럴림픽(장애인올림픽) 출전권 획득 전망을 밝혔다.

그는 내년 4월에 열리는 아시아 장애인조정선수권대회에서 도쿄패럴림픽 출전권획득에 도전한다.

그는 부상 이후 재활 운동으로 접한 장애인 조정의 매력에 흠뻑 빠져 선수로 변신했다. 올해 4월 창단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장애인 조정선수단에 입단해 본격적으로 훈련에 매진했다.

연합뉴스

제주 바다를 따라 펼쳐지는 신나는 질주

내일 ‘2019제주그란폰도’ 개최
100km 장거리 비경쟁 마라톤
다양한 행사·캠페인 등 풍성

제주 바다를 따라 자전거로 달리는 ‘2019 제주 그란폰도’가 오는 19일 제주시 이호랜드에서 열린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가 주최·주관하고 한라일보, 제주자전거연맹, 이호동주민자치위원회, TBN제주교통방송,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후원한다.

올해 4회째를 맞는 대회는 비경쟁 장거리 마라톤으로 새롭게 선보인다. 지난해까진 제주국제사이클링페스티벌로 치러졌지만 100km 코스를 개발해 관광상품으로 거듭났다. 이번 대회에는 자전거 동호인 약 720여명이 참가해 힘차게 페달을 밟는다.

대회 코스는 100km 장거리 그란폰도와 30km 해안도로 투어로 구성됐다. 장거리 그란폰도는 제주시 이호랜드에서 출발해 애월해안도로, 각지해수욕장을 거쳐 반환지점인 무릉사장로교차로를 지나 돌아오는 코스다. 투어 코스는 이호, 애월, 각지 등 저마다의 매력을 지닌 해안을 끼고 달릴 수 있어 인기가 있다.



작년 9월 열린 ‘2018 제주 국제 사이클링 페스티벌’에서 참가자들이 힘차게 출발선을 나르고 있다. 사진=한라일보 DB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키즈바 이크렙피언십도 첫선을 보인다. 어린이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호랜드 안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호테우 해수욕장의 상징인 말등대에선 플라마켓이 열린다. 도내 사회적기업과 창업기업, 제주의 다양한 기념품을 판매하는 셀러가 참여해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한다.

자전거를 타기만 해도 기부를 할 수 있는 ‘타-캠페인(T-campaign)’도 펼쳐진다. 다 같이 즐기고 동참해 어린이들의 재능을 지원하는 사회공

헌 프로그램이다. 1km 당 약 100원이 적립되는데, 모든 참가자의 거리를 합산해 적립된 금액만큼의 자전거 상품이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아동청소년보호시설로 전달된다.

이 캠페인에는 ‘자연인’, ‘헬스보이’로 친숙한 개그맨 이승윤과 제주살이를 하고 있는 가수 이정이가 함께한다. 이외에도 티웨이항공, 코카콜라, 유한양행, 가민, 아일랜드프로젝트, 바이크트림, 이니스프리 등 유명기업이 제품을 후원하고 기부에 동참한다.

김지은기자

안병훈, 더 CJ컵 1R 단독선두 황중곤·임성재·이수민 ‘톱10’

안병훈(28)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더 CJ컵(총상금 975만달러) 1라운드를 단독 선두로 마쳤다.

안병훈은 17일 제주도 서귀포시 클럽 나인브릿지(파72·7천241야드)에서 열린 대회 첫날 1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8개를 뽑아내며 8언더파 64타를 기록했다.

7언더파 65타인 단독 2위 호아킨 니만(칠레)을 1타 차로 따돌렸다. 전반 9개 홀에서 버디 4개를 잡아낸 안병훈은 11번부터 13번까지 3연속 버디를 몰아치며 타수를 줄였다.

한국 선수들은 1라운드 10위 안에 4명이 이름을 올리며 3년째인 이 대회 첫 우승 가능성을 밝혔다.

안병훈 외에 황중곤(27)이 5언더파 67타로 공동 4위에 올랐고 임성재(21)와 이수민(26)도 나란히 4언더파 68타, 공동 9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황금어가

신선한 초밥이랑 활어회!

□ 인사의 말씀

심상한 활어회와 저렴한 코스요리로 최고의 맛과 품질을 자랑하는 황금어가입니다. 제주의 제철 농산물 재료로 신선한 고향의 맛을 담아 고객 한 분 한 분 가족처럼 모시고 편안한 분위기로 회, 세미나, 돌잔치등 다양한 단체 모임에도 안성맞춤입니다. 황금어가는 처음과 같은 맛과 정성, 친절함으로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금신·이정열 배상

1 종합경기장

제주시 보건소 시민복지타운광장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KBS 농협

연복로

• 예약접수 받고 있습니다.

주소 : 제주시 복지로 5길 11(도남동 763-1) 도남정부청사 정문 남측

☎ 064)753-8253

점심특선

지리 10,000~
삼계탕 10,000~
초밥 10,000~

저녁

황금코스 35,000(1인당)
어코스 30,000(1인당)
가코스 25,000(1인당)

직원구함

• 주방실장 ---- 〇명
• 주방찬모 ---- 〇명
• 홀서빙(경력자) 월 300만원
• 오전반 월150만원
• 오후반 월150만원

단체석 10~80인석
전용주차장 확보